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6월 23일(금)
(음력 5월 29일)

Пятница

23 июня 2017 г.

№ 24(11674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6월 22일은 현충 및 애도의 날

76년전, 1941년 6월 22일에 대조국 전쟁이 시작됐던 날을 현충 및 애도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고 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이날 새벽 4시부터 <추념의 촛불>행사로 전쟁 참전용사들의 넋을 기리며 아침 10시에는 <영예>광장에서 추념행사가 진행되었다.

▲ 사할린주·시 정부 관계자, 대조국전쟁 참전 용사들,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시민들 수백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화대에 헌화하며 참전 전사자들에 대한 묵념을 올렸다. (이예식기자 촬영)

유즈노사할린스크시장, 두마(의회)에서 보고

지난 21일(화) 시의회에서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이 2016년 상반기 종결 사업보고를 하면서 사업에서 불충분했던 점들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특히 건설분야에서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지휘자로서 시 건설관리국과 도로, 단지, 유치원, 주택 등 공사를 맡은 주청 회사들의 품질과 공사기간 위반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작업 문제였다.

이어 시장은 낡고 파괴된 주택 철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 시행정부가 주택운영회사들의 사업에 대한 통제체제가 미약한 점, 그리고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 등을 인정하고 행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을 잘 인지하여 앞으로 실제적인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해 가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했다.

반면, 시장은 중소기업발전에 대한 성공적인 부분, 도로 운영, 농업과 교육분야에서의 좋은 성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단지 내 정비사업은 5년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시의원들은 시장의 보고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공공자치구역들에 추가 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시행정부 자료에서)

사할린, 한국 과학기술단체들과 협력 확대

지난 주일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7회 러시아-한국-CIS과학기술국제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16일(금) 사할린주정부에서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 대행은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윤수 부회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원장, 재러한인과학기술자협회 텐 에디스 회장 등과 만났다.

부수상은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단시일에 발전시켜가는 대한민국과 사할린의 협력과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특히 양국의 과학기술 분야에서 교류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 표명했다. 그는 사할린주는 가장 큰 한인디아스포라가 형성된 관계로 사할린한인들은 한국과의 교류에서 큰 다리역할을 하여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한 점도 크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사할린의 과학자들이 한국에서 연수의 기회를 갖도록 한국과학기술단체 지도자들에게 요청했다. 과총의 김윤수 부회장은 사할린 정부가 한국과학의 경험을 공유하려 하고, 혁신에 대한 지원과 사람들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향후 협력관계로 실제적 결실과 지역의 유익을 가져오도록 방향을 잡겠다고 하고 사할린의 과학자 연수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본사기자)

단신

사할린, 극동 민간포럼 개최

6월 23-24일 양간 사할린에서 <민족들, 종교, 사회> 극동 민간포럼이 진행된다. 포럼 일환으로 수많은 행사들이 개최될 예정으로 그중에는 민족정책, 다민족 등 주제로 좌담회, 극동지역들의 사회위원 간 협력협약서 체결식, 갈라공연, 민족요리교실들, 전통민족놀이감 만들기, <자비의 집>재활센터 소개, 트로이츠크에 정교회 방문 등으로 이뤄진다. 행사들은 주정부 청사, 주도서관, 한인문화센터, 체호브의 책 박물관, <옥차브리>영화관 등에서 펼쳐지는 가운데 사할린주한인회도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석경 소설가, 사할린에서 3개월 머물 예정

지난 주말에 한국의 유명한 강석경 소설가가 사할린에 도착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의 해외정착거점 파견작가 프로그램으로 사할린을 찾은 강 작가는 9월 초까지 사할린에 머물 계획이다. 강 작가는 사할린 동포들의 역사와 삶을 열심히 파악할 생각이라고 했다. 사할린은 작가들의 충진지로 2011년부터 정해져왔다.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의 프로그램으로 사할린을 다녀간 김민정·신영선 희극 작가들, 장경선 동화작가, 정태연 소설가와 나상만 연출가가 있다.

최근에 이 프로젝트는 사할린한국교육원(원장 김주환)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17기 민주평통, 올 6월 말까지

지난 21일(수)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할린 자문위원들(박순옥 주한인회장, 김홍지 주노인회 회장, 장용운 사할린한국한인회 부회장, 오진하 주한인회 고문, 임용군 전 사할린주한인회 회장, 김춘자 우리말TV방송 국장, 새고려신문사 배 워도리아 사장)이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마지막 회의를 가졌다.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민주평통 블라디보스토크(극동지역)협의회 이경중 회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회의에서 17기 간 활동 보고가 있었다. 제18기 민주평통은 7월 1일 출범한다.

사할린, 러일 문화예술축제 열려

6월 25일(일) 사할린에서 러일 문화예술축제가 열린다. 축제는 다도, 일본 사진작가 전시회 개막, 이케바나-쇼, 일본 미술전시회, 공예작 전시회 등 일본 작가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식 개막식은 16시 체호브센터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북 쿠릴, 첫 연송어 획득

북 쿠릴섬들에서 공식적으로 시작된 올해 성어기에 첫 결실을 가져왔다.

연송어잡이하는 <알라이트>, <그라니스>와 <쿠릴스키 리마크(쿠릴 어부)>업체들의 어획량은 네르카 33여 톤, 송어 69톤과 연어 175톤에 달했다.

연구소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르면 이번 연송어 성어기에 다양한 연송어 5500톤을 채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단지 올해는 차위차(연송어중 하나)잡이가 금지되고 네르카잡이도 제한되어 습습섬에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만 어획이 가능하며

연송어 어획 시기는 8월 31일까지라고 알려졌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새고려신문을 구독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지난 5월 말-6월 초에 모스크바 출장을 다녀온 필자는 한 행사(컨퍼런스)에서 반가운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사할린 출신의 동포들이었다. 같은 날 러한문화축제 일환으로 클래식음악 갈라공연을 찾았더니 바로 앞줄에도 모스크바로 이주한 사할린동포들이 꽤 많이 앉아 계셨다. 한 분이 나를 알아보고 자기들이 바로 모스크바 사할린동포협회원들이라고 소개했다.

그러지 않아도 이번에 지역 간 사회단체 <사할린한인협회>(일명 모스크바주변지역 사할린동포연합회)를 소개하고자 했다.

단체에 대한 궁금증을 동 회 박 알렉산드르 부회장(현재 회장 대행)과 김수만 부회장을 통해 풀수 있었다.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협회는 2000년 4월에 설립되었고 설립목적은 정든 사할린 땅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동포분들을 단합, 민족문화와 전통을 이어나가고, 고국과의 연계를 지속 유지·발전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1세 분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회를 설립했다고 김수만 부회장이 소개했다.

단체의 초대 회장인 김진희 선생은 예전에 사할린의 조선사범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하셨기에 어딜 가나 제자들이 없는데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제자를 배출했다. 현재 명예회장이로서 영주귀국하여 고국에서도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현 6대 회장(임기 2018년 2월까지)은 유성찬 씨다. 그러나 현재 개인사정으로 장기간 모스크바를 떠난 관계로 협회사업을 박 알렉산드르 부회장이 대행하고 있다.

협회 설립 초기에 트웨리, 상트페테르부르크, 로스토브 등지의 동포들도 이 단체에 가입했었다. 현재 트웨리,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 협회 지부로 되어있고 로스토브는 독립하여 직접 한국적십자 등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다.

현재 협회의 관할 지역은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트웨리, 노워시비르스크 등지인데 그의 벨라루시와 우크라이나의 사할린출신 동포들도 모스크바의 협조를 부탁한다. 특히 한국 적십자사가 일시모국방문, 영주귀국 사업등을 실시할 때 모스크바 동포회에서 서류작성을 비롯 여러가지를 지원했다.

한인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정회원 수는 총~300명이고 이중 모스크바(165명), 상트페테르부르크(55명), 트웨

먼 모스크바에도 사할린한인문제를 열심히 다룸

역사문화행사 기획, 중창단 · 컴퓨터 학습반 운영



▲ 박 알렉산드르와 김수만 부회장들.

리(30), 노워시비르스크(20), 벨라루시~20명(추정), 우크라이나~20명(추정)이다.

현재 모스크바 등지에서 2~4세 포함 사할린출신 동포계가 최소 1,800~2,000명으로 추정되며, 해마다 3~4세 청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단체의 주요활동을 소개하자면 물론 1세 사할린동포분들의 영주귀국 사업과 1세 및 2세 동포들의 일시모국방문 사업 지원 (한국적십자사 협력), 고령의 사할린 동포들에 대한 돌봄양면의 지원사업 등이다. 아주 중요한 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회 운영위원들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모스크바 내에서만 하더라도 얼마 전에 협회는 역사문화활동을 시작했다.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2015년에는 사할린한인사를 연구하는 박승의 전 사할린 국립대 교수와 진 율리아 역사학 준박사를 초대하여 사할린동포 역사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진행했고 '사할린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진 율리아 연구가의 책 발행을 지원한 바도 있었다. 동포계 문화 보급과 문학 유산 살리기 차원에서 2016년에는 사할린에서 허남영(허 로만) 작가 시인과 장태호 시인을 초청하여 사할린한인 문학에 관한 모임도 가졌다. 같은 해에 고 박수호 교수에 대한 추모회도 소집했었는데 이에 영주귀국을 하신 미망인 박장녀 여사와 칼라가노와 전 사할린국립대 동양학부 학장도 초대됐었다.

협회는 이 방면으로 활동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물론 우리 동포들이 즐기는 추석, 음력설맞이 등 주요 민족 명절행사도 정



<갈매기>중창단

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의 협회 회원들은 러시아국경일과 관련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민족문화 보급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주러 한국대사관, 전러시아 고려인연합회, 동포계 신문사 등 기관·단체와 밀접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국문화축제를 비롯해 모스크바 정부가 개최한 사모와르페스트란 다민족축제에도 우리 동포들이 아름다운 한복차림으로 참가하여 모든 이들의 부러운 눈길을 샀다. 사할린한인협회 소속 <갈매기>중창단은 지난 6월 12일 진행된 한-러 친선을 기념하는 <한러친선 한국문화 큰 잔치>에서는 <홀로 아리랑>을 불러 관중들의 대환영을 받기도 했다. 협회를 대표한 최 카리나와 박 유리 두명은 이 축제에서 현대 히트곡을 잘 불러주었다고 협회 관계자들이 자랑을 했다.

<갈매기>중창단은 8~10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주일에 한두 번씩 연습을 하고 있다. <갈매기>중창단은 협회의 자랑으로서 특히, 얼마 전에 전문 지휘자 최중화 (사할린에서 열심히 활동했음, <쿨투르니 센터>오케스트라 지휘자 역임.) 씨가 모스크바 협회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마추어 가수들의 가창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평하기도 했다. 모스크바 사할린협회는 1세 동포분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학습도 운영할 계획이다.

협회 운영위원회는 12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한 달에 한두 번 회의를 갖고 있다. 회원들은 주로 60대 분들로 젊은이들은 거의 한인단체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것이 가장 마음 아프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박 알렉산드르 회장

대행이 고민이 많았다. 40대인 그는 1-2세들의 회원들이 자기 자녀라도 협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주면 사업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도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사회사업에 좀더 관심을 갖고 부모들은 협회 활동에 대해 많이 이야기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로 세대간 소통이 잘 안 되는 문제로 보인다. 지적했다.

"60대의 회원들도 자기들끼리 잘 묻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할린, 모스크바, 한국에 소재하는 사할린한인단체들 사이와도 먼 것 같습니다."라고 박 회장 대행이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다. 알렉산드르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 특히 미래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금 뭘 해야 하는지, 바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싶은 심정을 토로했다. 모스크바, 사할린, 한국 등지의 사할린단체장들이 의견을 나누는 장이라도 마련해볼까란 생각도 하고 있다.

몇 년 전에 협회의 김태익 부회장이 모스크바 단체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사할린한인들에 관한 자료를 많이 수집·공지했다.

다른 지역 사할린동포 열성 지지자들과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모스크바 협회 운영위원들은 얼마 전에 WhatsApp 바탕메신저(스마트폰 메신저 네트워크) 그룹채팅을 만들고 또 모스크바 협회 회원 그룹채팅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바로 새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나누며 서로 기념일을 축하하기도 하고, 우리 새고려신문의 신간호도 바로 올리고 있다.

먼 모스크바에 있을지라도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협회는 사할린한인문제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루고 있다.

(배순신기자) (사진: 모스크바 사할린한인협회 제공)

이 모저 모

사할린, 평창동계올림픽 경기기간에 평창으로 가는 복권 티켓 타기

6월 24일 사할린에서 <올림픽의 날>을 기념하는 날에 한국 평창으로 가는 티켓 당첨의 기회가 온다.

2018년 다가오는 한국 평창동계올림픽을 맞이하여 올해는 <고르니 워스두호>스키장 중앙광장에서 24일에 복권 추첨이 진행된다. 당첨된 복권은 동계올림픽 경기기간 동안 자유로운 날짜에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 티켓이 선물로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이벤트의 참가자들은 스케이트보드, 오토바이, 신체 상태를 측정해 주는 피트니스 팔찌 등 다양한 스포츠용품의 상품에 당첨 기회도 있다.

이날 유즈노사할리스크에서는 자전거 경주와 육상경기가 조성된다. <올림픽 마일> 행사는 작년과 같이 <고르니 워스두호>스포츠종합관광단지에서 도로에서 진행되며 참가자 사전등록은 6월 13일에 있었다. 자전거 경주 및 기타 참가 희망자는 이메일 주소 probeg@sakhalinbike.ru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 홍보실이 전했다.

육상경기에 참가자도 등록을 요한다. 등록은 <에리크 콤나츠키> 하계스포츠중학교에서 14시부터 17시까지.

공식개막은 아침 10시, 출발점은 <고르니 워스두호>스포츠관광단지에서 도로에서 시작된다. 자전거 경주는 10시 10분, 육상경주는 10시 15분 출발할 예정이다. 스키장 중앙광장까지의 무료 곤돌라탑승은 9시 30부터 11시 30분까지다.

<고르니 워스두호> 중앙광장에서는 체험경기장이 펼쳐지는 가운데 양궁과 페인트볼 사격도 체험해 볼 수 있고 자전거스포츠사회단체는 <벨로라위나>자전거로 엑스트 오르내리기를 준비했다. 번호 배정과 추가등록은 6월 24일 9시 시작한다.

билет в Пхёнчхан разыграют в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на Сахалине

билет в корейский Пхёнчхан можно выиграть в олимпийский день на Сахалине,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24 июня.

В этом году он будет посвящён предстоящей в 2018 году Олимпиаде в Южной Корее. билет на самолёт туда и обратно с открытой датой на Олимпийские игры станет главным призом беспроигрышной лотереи, которую в этот день проведут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Помимо этого, гости и участники праздника смогут выиграть скейтборд, самокат, фитнес-браслеты и другие спортивные подарки.

В этот ден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велопробег и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ий забег. «Олимпийская миля»,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ройдет по автодороге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началась 13 июня. Для желающих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велопробеге действует электронная почта, на которую необходимо отправлять заявку -

probeg@sakhalinbike.ru,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участия в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м забеге тоже необходим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Это можно сделать в школе лет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имени Эрика Комнацкого с 14:00 до 17:00.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ачнется в 10:00 на точке старта (автодорога на СТК «Горный воздух»). Старт велопробега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10:10, легкоатлетического пробега - на 10:15. Подъем на среднюю площадку СТК будет бесплатным с 09:30 до 11:30.

На средней площадке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развернут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Здесь можно будет пострелять из лука и пейнтбольного маркера.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по велоспорту подготовила экстремальный спуск и подъем на велосипедах «Велолавина». Раздача номеров и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участников начнется 24 июня в 09:00.

쿠즈네초브 콧에서 사할린 자원봉사자들 <깨끗한 놀이>행사를 진행

<부메랑>클럽의 자원봉사자 30명은 강치의 서식지와 가까운 쿠즈네초브 콧에서 연방정부의 <깨끗한 놀이> 기획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를 실시했다. 청소는 해안가에 모인 약 5톤의 쓰레기들을 처리하며 생태환경의 문제점을 짚어 보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쿠즈네초브콧에서의 <깨끗한 놀이> 행사는 <에코젤로>연합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8면에 계속)

민족 정체성 문제로 토론

지난 15일-16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7회 러시아-한국-CIS 과학기술국제컨퍼런스가 진행되었다. 컨퍼런스는 전러시아고려인연합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민국), 재러한인과학기술자협회, 사할린정부, 사할린인문기술대학, <진보> 우즈베키스탄과학기술자협회, <카하크> 카자흐스탄과학기술자협회의 주최·주관 아래 진행되었다.

16일 사할린인문기술대학에서 컨퍼런스 일환으로 <민족 정체성과 사회적 이니셔티브>란 주제로 진 울리아 역사학 준박사가 한 섹션의 활동을 진행한 가운데 주제가 많은 관심을 이끌어 강의실에는 주로 러시아·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할린동포 활동가들 약 40명이 모였다. 진 울리아 진행자는 우선 민족 정체성이란 개념 자체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첫 발표자를 소개했다. 타이 알레리와 타이 위탈리 부자는 예카테린부르크 고려인민족자치문화회를 대표해 <기억, 마지막 큰 절>이란 주제로 1930년대 스탈린의 억압을 당한 예카테린부르크 고려인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방면의 현지 고려인 지치회 활동도 소개했다.

월고그라드에서 온 독립 연구자인 김 일기자는 <고려사람들의 정체성과 모국어의 역할>이란 발제를 했는데 그는 그동안 고려사람들의 모국어 유지에는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았다.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교수는 사할린주에서의 한국어교육 상황을 보고하고 조선학교 활동, 폐교 상황, 사할린국립대와 한국어교육채택학교들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정리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한국어교육에 젊은 동포보다 러시아인이 훨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단 점이 현실이라고 보고했다.

김 모이세이 전러시아고려인협회 고문은 <1937년 고려인들의 러시아 극동에서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강제이주>란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고려인 정체성을 이야기하며 올해 강제이주 80주년이지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이 기념 행사를 강제이주가 아닌 그곳으로 정착 80주년으로 기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고문은 전러시아고려인협회가 개최하

는 고려인 강제 이주 80주년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주요행사들은 올 9월에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등지에서 펼쳐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순옥 사할린주한인회 회장의 발제는 <주이산가족협회의 사할린한인 2세 조사는 사회적 이니셔티브>로 정해져 있었지만 다른 발제자들의 발표들을 들으면서 우선 사할린한인들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정체성문제로 넘어가면서 일부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박 회장은 작년에 실시된 여론 앙케트 응답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했다.

좌담회 참가자들도 모든 발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사할린한인 문제를 연구하는 아나톨리 쿠진 교수, 양 세르게이 작가, 김춘경 <소망>어린이창작협회 회장, 3세를 대표한 김 알렉세이 군 등이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행사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토론장이 중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자주 이러한 의견 교환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다.

(취재: 배순신 기자)

재외동포재단, '2017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 개최

전 세계 각국 한인회 사무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포 사회의 현안을 논의하고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네트워크의 장이 마련된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이하 재단)은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과 강원도 평창을 오가며 '2017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를 개최했다.

-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는 전 세계 각국 동포 사회를 이끄는 한인회의 사무국장들이 모국에 모여 재단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상호간 유대 및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연수에는 북미, 유럽, 아프리카·중동, 중국, 일본 등 대륙별 총연합회 및 지역한인회 사무국장 34명(23개국)이 참석했다.

20일(화) 오후 개회식과 환영만찬으로 시작되는 연수는 재단 사업 소개 및 부서장 간담회, 재단 이사장과의 대화, 외교부와의 대화시간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은 재단과 한인회 간의 효율적인 소통과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한인 사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모국과 한인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22일(목)에는 참가자들은 강원도 평창으로 이동해 지역별 현안토론 및 발표를 통해 한인회의 역할과 지역사회 공헌 방안을 논의하고 또한 각 한인회 신규 사업개발을 위한 회의를 통해 우수 사례를 발굴을 계획했다.

마지막 날인 23일(금)에는 전체회의를 갖고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리는 경기장 클러스터 방문을 끝으로 3박 4일간의 연수 일정을 마무리했다.

주철기 이사장은 "전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의 역량을 결집하는 한인회의 활성화 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한인회 사무국장 연수가 재외동포사회와 모국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크리틱]

소설의 재발견, 사할린의 재인식

이명원 문학평론가,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5월 초에 3권 짜리 두툼한 장편 소설을 읽었다. 제목은 <사할린>이라 적혀 있었는데, 일면식도 없는 원로 작가의 소설이었다. 소파에서 별생각 없이 읽기 시작했는데, 그만 한밤을 꼬박 새우고야 말았다.



이 소설은 태평양전쟁이 격화되던 일제 말기 경남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위안부와 노무자로 사할린에 강제연행된 후 그곳에서 겪는 여러 형태의 식민지적 참상을 조명하고 있다. 해방을 전후로 사할린과 경남지역에서 일어난 여러 참극들, 이를테면 소련군의 점령 이후 일본인들은 고국으로 귀향하지만, 조선인들은 무국적자로 처리되어 사할린에 남게 되면서 초래된 일련의 역사적 고통들, 해방은 되었지만 일제하 민족운동에 대한 박해가 한국전쟁의 과정에서 보도연맹 사건으로 뒤틀리고 비화되어 억울하게 희생되어야 했던 역사적 상황 등이 날카롭게 교직되고 있다.

사할린과 경남지역을 인물 시점으로 왕복 서술하면서 전개되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일제 말기로부터 소련과의 수교가 이루어진 1990년대까지 사할린 조선인 동포들의 끈질긴 생명력과 조국 귀환에 대한 열망과 좌절을 확인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책읽기를 수반했다. 일제 말기의 조선문학을 검토해 왔으면서도, 또 여러 일본어 문헌들을 통해 식민지시기 조선인 문제를 탐구해 왔으면서도, 사할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무지 상태였던 나 자신을 반성하는 계기도 되었다. 총체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 소설은 애초에 <면 땅 가까운 하늘>이라는 제목으로 1996년에 출간된 것을 이번에 제목을 바꿔 재출간한 것이라 한다. 나 자신이 과문한

지는 몰라도 현장비평계에서 이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비평적 논의는 없었던 것 같다. 거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일상성과 욕망을 주로 묘사했던 1990년대 주류 문단의 경향 속에서, 일단 이 소설의 중요성이 간과되었을 확률이 높다.

동시에 이 소설의 작가가 주로 부산경남지역에서 활동했고, 소설의 초판본이 서울의 주류 문학출판사에서 출간되지 않은 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이 소설이 재출간된 이후의 보도 기사를 검색해 보면, 지역일간지는 자못 비중 있게 보도했지만 중앙일간지에서는 전혀 조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한다.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서울중심성의 문제가 여러 모로 이 소설의 망각에 기여한 게 아닐까.

나와 같은 문학평론가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압도적으로 출간되는 작품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물론 힘에 부치는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문학적 징후를 드러내는 작품의 경우 예민하게 포착하고 성실하게 비평적 조명을 가해야 하는데, 나 역시 서울중심주의 혹은 주류 문단의 문학출판 관행에 알게 모르게 익숙했던 게 아니겠나 하는 반성도 해 보았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소설가의 태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작가인 이규정은 이 소설을 '현장취재 장편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작가가 사할린에 대해 관심을 둔 것은 1970년대 중반부터라고 하는데, 당시는 미-소 냉전 상황이자 한국과 소련 역시 미수교 상태였으므로, 일본 등의 자료를 통해서만 우회적으로 사할린 문제를 탐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1990년대 초에 비로소 사할린을 직접 방문 취재해 이 소설의 서사적 골격과 디테일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데, 소설의 시공간과 중심사건을 끈질기게 탐구하고 장악하려는 열정의 지속은 존중할 만하다.

소설도 재발견하고 역사도 재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오랜만에 경험한 뜻깊은 독서였다. (한겨레)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나는 아버지 산소에 참배하면서 아버지 묘를 끌어안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목매어 불러봤으나, 그 소리는 산을 어루면서 되돌아올 뿐이었으며 저승에 계시는 아버지 목소리는 들을 수가 없었다. 45년 동안 불러보지 못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자식 명복이 돌아왔습니다! 라고 외쳤으나 아버지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고이 잠든 영원 잠을 계속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중이라도 한국에 있는 아버지 묘를 방문할 수 있었던 것은, 1990년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사할린 한인의 친척들을 초대하는 행사를 열어준 덕분이다. 이때 모국을 방문한 안명복 선생 어머니는 1993년에 사망하여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묘지에 묻혀 있고, 아버지 묘는 적십자사와 이산가족회 등의 도움을 받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천안 <망향의 동산>으로 옮겼다.

그러고 난 뒤 아버지가 귀국 후 재혼하여 낳은 이복동생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안 선생은 그것을 읽으면서 홀로 참 많이 울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여쭙다 술에 취해 들어올 때마다 장남 명복의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는 구절 앞에서는 더더욱.

오라버님 전상서. (...) 서로 다른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꼭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살아서는 갈 수 없는 사할린 땅에 죽어서 영혼이나마 내 아들 찾아가겠다고 눈물을 흘리시며 눈을 감으시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여 가슴이 아프습니다. 평소에는 안 그러시더라도 약주가 거나하게 취하시는 날이면 명복아 명복아 하며 오빠 이름을 허공에 대고 부르시다 잠이 드시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얼굴도 모르는 오빠이지만 그 이름만은 결코 생소하고 낯설지 않습니다.

발설과 기록,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

1990년대 들어 이중징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안명복 선생은 123명의 피해자를 직접 찾아내는 한편, 1992년에는 <이중징용 광부 유가족회>를 만들어 영주귀국하기 전까지 회장을 맡았다. 그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가족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역설적이게도 안명복 선생의 아버지는 '피해자'로는 인정되었으나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는 제외되고 말았다. 사할린 징용 피해자 관련 규정에 의하면 '1990년 이전 사할린에서 사망한' 이들만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기에, 1946년에 한국으로 귀국해 거기서 사망한 안차문 씨는 한마디로 자객 미달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Новым командующим морских сил стал один из членов взявшей верх при дворе клики — адмирал Вон Гюн. В течение непродолжительного срока,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го Вон Гюн находился во главе флота,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его снизилась. В битве при Чильчоннян японцы напали на н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е к бою корейские корабли и добились полной победы — весь корейский флот погиб, сам Вон Гюн убит в сражении, вместе с ним погиб талантливый сподвижник адмирала Ли Сунсина адмирал Ли Окки. Корейскому королю ничего не оставалось, кроме как призвать Ли Сунсина из тюрьмы.

Ли Сунсин собрал остатки флота южных провинций — всего 13 кораблей типа «пханоксон». С их помощью он сотворил т. н. «чудо при Мённяян», одержав победу над огромным японским флотом (называют цифру в 333 корабля), имея в своём распоряжении 13 кораблей. Для этого Ли Сунсин удачно использовал особенности навигации у корейских берегов, знание течений, высоты приливов и отливов. Большая часть японских кораблей была завлечена в узкий пролив и разбита силой течения на прибрежных скалах. Корейцам осталось только добить потерявший боеспособность японский флот.

После смерти Тоётоми Хидзёси дальнейшее продолжение войны стало для японцев бессмысленным, и в 1598 японская экспедиционная армия была эвакуирована на родину. Ли Сунсин, соединив свой флот с минским флотом под командованием адмирала Чэнь Линя, атаковал отступающих японцев и одержал над ними крупную победу в бухте Норянчжин. Однако в конце боя Ли Сунсин был смертельно ранен шальной пулей. Он просил своего племянника Ли Буна скрыть свою смерть, чтобы не деморализовать союзников. Остатки японского флота ушли на Цусиму.

Война нанесла серьёзный ущерб Корее не только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и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м плане, но и в культурном, поскольку многие истор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и записи были уничтожены вместе с императорскими дворцами в Сеуле. В результате неудачи в Японии резко упало влияние Тоётоми Хидзёси, вследствие чего его род потерял титул сёгуна. В то же время, отступая, японцы захватили ряд корейских учёных-конфуцианцев и мастеров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фарфора и книгопечатанию. Это оказало формирующее влияние на ряд аспектов японской культуры последующего периода.

Ли Сунсин был признан героем в Китае и Корее и глубоко почитается в Японии. Его памятник, как высшее признание его заслуг перед родиной, стоит на главной площади Сеула Кванхвамун прямо перед статуей короля Сэджона.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 СО

НА САХАЛИНЕ УСПЕШНО ПРОШЛА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Как уже сообщалось с 15 по 17 июн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XV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и со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выступили Общероссийское объединение корейцев(ООК), Коре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ский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учно-технические общества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АНТОК», Узбекистана «ТИНБО» и Казахстана «КАХАК».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в большом зале корейско-

подготовил доклад на тему «Насильственное выселение корейцев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1937 году в Среднюю Азию и Казахстан. Утраты и приобретения». Он лишь частично коснулся своего доклада, больше говорил о состоянии дел в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е России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момент, затрагивая те проблемы и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волнуют корейцев,



Ким Моисей



Ким Алексей



Корнеева Инна

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форум собрал более 150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уки, деловых кругов, вла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культуры,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Приветственные речи со стороны организаторов и высоких гостей, пожелания удачной работы. И вот, после пленарного заседания началась самая интересная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конференции – эта работа по секциям, где специалисты могли обменять мнениями, обсудить последние новости в той сфере, которую представляют. Ведь на одной площадке встреча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Рос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захстана и Узбекистана. Работа по секциям проходила в самых различных формах от простого заседания,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до проведения мастер-классов. Ведь затрагивались как вопросы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й науки (физика, математика и т.д.), прикладной, а также естествен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ук, в том числе и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и нанотехнологии. Работа всех секций прошла на базе Сахалинского гуманитар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ого института(СахГТИ).

Несомненно, большой интерес у общественности вызвала работа секции, проходившей в форме круглого стола. Его название «Националь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и общественные инициативы» говорит само за себя. Ведущими стали кандидаты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Дин Юлия и Маленков Виктор.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с интересом прослушали выступление-презентацию отца и сына Тхай Валерия и Тхай Виталия (Екатеринбург) «Память. Последний поклон до земли». Доклад рассказывал о проекте группы энтузиастов из Екатеринбурга, которые возродили интерес к трагическим страницам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связанным с репрессиями и депортацией 1930-х гг. Активисты открывают новые, неизвестные архивные документы о тех, кто безвинно пострадал в те тяжелые годы. Память о тех людях позволит нам не только

Советник председателя ООК (Москва) Ким Моисей Ирбемович

политику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и т.д. Он также рассказал о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 80-летию насильствен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 в Среднюю Азию.

Двое выступающих - Ильгиза Анваровна Ким (Волгоград) и Ин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Корнеев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ахГУ) - выступили с докладами, рассказывающими о состоянии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интересу к этому обучению со стороны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К сожалению, докладчики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что интерес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среди этниче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стоянно снижается 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поддерживается во основном за счет популярности корейской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среди русских, а не корейцев.

Темой выступления Пак Сун Ок (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ыло «Анкетирование по проект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ак общественная инициатив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а Пак Сун Ок немного отступила от темы, выступив с кратким обзором основ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торую они ведут и отклик, который они получают от корейцев. РООСК и аффилирова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ведут несколько проектов, получая поддержку от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ле выступления всех докладчиков, началась дискуссия.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задавали вопросы и высказывали свои соображения о состоянии дел в основном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е.

Кузин Анатолий Тимофеевич, д.и.н., известный историк высказал несколько предложений по организации конференции, а также задал вопрос, почему не пригласили на конференцию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НДР, раз уж она называется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Ким Чун Ген (Тамара Васильевна) предложила в числе прочего сахалинским историком написать и

распространять учебное пособие п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ло бы в сжатой и интересной форме рассказывать о истории корейцев детям старших классов и студент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Алексей Ким, задал важные, актуальные вопросы о дальнейших целя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н закономерно указал на то,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как 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дин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принимает участия в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е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цам никаких льгот и преимуществ (гражданство, бесплатное обучение, помощь в переезде) и практически самоустранилась от этого вопроса. Однако у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не было ответа представителю молодого поколения, каким образом добиться большего внима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к своим проблемам.

По задумке организаторов, круглый стол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ажных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 корейцев России, бесспорно выполнил свою роль, хотя жаркая дискуссия не помогла ответить на многие вопросы.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еются, что проведение подоб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где могут встретиться люди с разными мнениями, позволит постепенно находиться общие точки пересечения и искать взаимовыгодный консенсус во многих спорных вопросах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России.

Накануне проведения круглого стола руководители науч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ществ России (АНТОК) Тен Эдис Борисович, Казахстана(КАХАК) Мун Григорий Алексеевич, Узбекистана (ТИНБО) Юн Любовь Мироновна, а также вице-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Ким Юн Су встретились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корейской общины в лице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руководителем передачи «Ури мальбансон» Ким Чун Дя, где узнали о насущных проблема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судили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корейских НТО также принял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где проявили больш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в развит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НТ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рганизаторы и участники масштабного форума остались довольны проведением форума на Сахалине.

Материал подготовили:
ЮЛИЯ ДИН, ВИКТОРИЯ БЯ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мощь Пхеньяну сократилась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помощь Пхеньяну сократилась. Об этом сообщает 20 июня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Америки», ссылаясь на данные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ординации гуманитарных вопросов ООН и Всемирной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сумма международ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составила 26,4 млн долларов. Это на 22,4%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Список стран, оказывающих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Пхеньяну, также сократился с семи до шести государств. Кроме того, объём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й Центральным фондом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чрезвычайные ситу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компаниям, действующим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ократился на 25%, составив 6 млн долларов.



Мун Чжэ Ин: Политик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на развит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будет свёрнута

Политика, ориентированная на развит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атомной энергетики, будет свёрнута. Об эт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заявил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19 июня церемонии вывода из эксплуатации атомн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Кори-1. По его словам, данное событие является началом нового пут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созданию безопасной энергетики, обеспечивающей сохранение экологии и устойчивый рост. Мун Чжэ И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где самое тесн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АЭС в мире, более не является безопасной от землетрясений. Он дал обещание, что примет меры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безопасности действующих АЭС. Президент также заявил о том, что все планы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ых АЭС будут свёрнуты. Кроме того, срок работы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бъектов более не будет продлеваться сверх гарантийного периода. Взамен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вивать отрасль возобновляемых источников энергии.

Кан Гён Хва стала министром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К

Несмотря на сильные протесты со стороны оппозиции, 18 июня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Мун Чжэ Ин назначил Кан Гён Хва на пост 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ведомства его возглавила женщина. Президент объяснил своё решение тем, что сейчас перед страной стоят неотложные проблемы в области дипломатии. В частности, готовятся встречи на высшем уровне.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планированные на конец июн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аммит, а на начало июля – саммит «Большой двадцатки»,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намечен ряд двусторонних встреч.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извал нового министра провести реформирование МИД и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внешнюю политику на так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как Евросоюз, страны АСЕАН и Африки. В президент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читают, что Кан Гён Хва успешно справится с этими задачами, так как она имеет большой опыт дипломатической работы. С 1999 по 2006 год она возглавляла департамент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и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тем работала специальным советником генерального секретаря ООН по вопросам политики.

Кан Гён Хва назначена на пост главы МИД реш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поскольку парламентские слушания по её кандидатуре фактически провалились. Оппозиционные партии выступили против её назначения из-за ряда нарушений, которые, по их мнению, являются недопустимым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служебной этики. Её подозревают в таких действиях как махинации с регистрацией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спекуляция недвижимостью, неуплата налогов и плагиат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диссертации. Президент Мун Чжэ Ин ещё в ходе своей предвыборной агитации назвал эти правонарушения недопустимыми для госслужащих. Часть из них Кан Гён Хва признала. Тем не менее, она стала вторым высокопоставленным госслужащим, назначенным без одобрения Национальным собранием. Первым был Ким Сан Чжо, назначенный 13 июня председателем комиссии по добросовестной конкуренции. В связи с решением президента противостояние между правящей и оппозиционными силами может ещё больше обостриться. Между тем,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сил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ближение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должны продолжаться, а администрация президента дала указание комиссии по подбору кадров повысить уровень проверки кандидатов на должност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RKI)

Диалог или война

США и Корея разошлись во взглядах

Как и ожидали многие эксперты, приход в Сеуле к власти настроенного на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диалог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ал приводить к серьёзному расхождению в вопросах политики по отношению к КНДР между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ей. Союзники хотя и избегают критиковать друг друга и пытаются обходить слишком «острые углы», но уже очевидно, что различие в их взглядах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слишком сильно, а все идет к тому,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откажется от безусловного прессинга КНДР, изменив тем самым дипломатическую расстановку сил.

Намеки на то, что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собирается выстраивать отличную от лин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литику появились уже в ходе предвыборной кампании Муна, а также последовавших после его победы на выборах ряда высказываний п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у вопросу. Но в более артикулированной и четкой форме Мун Чжэ Ин высказался три дня назад, использовав для этого 17-ю годовщину проведения первого меж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Лидер Южной Кореи призвал уважать и соблюдать заключенные ранее межкорейск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а также соглаш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достигнуты в рамках шестистороннего переговорного процесса, и при этом пригласил Пхеньян возобновить диалог. «Я прямо заявляю: если КНДР прекратит ракетные и ядерные провокации, то мы готовы прямо сейчас начать диалог с Пхеньяном без каких-либо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 подчеркнул он в выступлении 15 июня.

Учитывая предыдущие высказывания Муна и данную речь, эксперты интерпретировали это как отход от предыдущих позиций консервативных лидеров Юга Ли Мен Бака и Пак Кын Хе, которые требовали от Пхеньяна сначала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шагов по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а только затем говорили о готовности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ША же до сих пор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этого же подхода, что теперь уже расходится с линией Сеула, который склонен к одно-временному «пакетному» решению как проблемы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КНДР, так и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хеньяна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ним.

Пока политологи «переваривали» и «разбирали» по косточкам каждое слово Мун Чжэ Ина в речи 15 июня, стремясь определиться с новым курсом Сеула, своего рода сенсацию сделал прибывший в Вашингтон специальный посланник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по вопросу объединения,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безопасности Мун Чжон Ин. Выступая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 столице США, он заявил, что «если Север прекратит ракетную и ядер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то Южная Корея и США готовы снизить масштаб ежегодных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манев-

ров, а также сократят уровень присутстви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идов вооружений Соединенных Штатов». При этом Мун Чжон Ин отметил, что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исходит от лидера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а. Спецпосланник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отметил, что высказы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и свою личную точку зрения, но его прибытие в Вашингтон в официальном качестве, упоминание о «предложении президента», а также тот факт, что уже менее чем через две недели ожидается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й саммит, не оставили сомнений в том, что у Сеула и Вашингтона теперь появились серьезные расхождения в позиции.

Получилось,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присоединилась к лагерю Китая и России, которые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предлагали в качестве первого шага противостоящим сторонам сделать взаимные уступки: Северу - заявить о моратории на ракетно-ядерные испытания, а Югу и США - сократить масштаб учений и отвести авианосцы от берегов Кореи. При президенте Пак Кын Хе Сеул был в авангарде сторонников самого жесткого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не соглашаясь на подобный обмен.

В целом следует признать, что для нов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Юга это было достаточно смелое заявление, которое тут же спровоцировало массу комментариев, в которых была явно заметна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в стиле: «А как же мы можем перечить США?!» По мнению политологов, Сеул заранее и весьма активно застолбляет свои позиции по КНДР накануне встречи Мун Чжэ Ина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29-30 июня.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Южной Кореи и от самого Мун Чжэ Ина также ранее прозвучали высказывания о том, что корейцам пора самим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ешать вопросы меж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ки, а не увязывать постоянно их с США.

Хотя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быстро попытались отыграть назад, сказав, что «Мун Чжон Ин во многом высказал свою личную точку зрения и говорил часто как ученый», но посыл Сеула понятен. Южная Корея намерена развивать диалог с КНДР и ищет для этого различные предлоги и поводы, активно дела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жесты в адрес Пхеньяна.

В Вашингтоне сначала никак не отреагировали на высказыва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Южной Кореи, но затем, после прямого вопроса журналистов,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Госдепартамента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в позиции США по КНДР не произошло никаких изменений: до начала диалога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она должна сделать шаги по отказу от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расхождение по КНДР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теперь очевидно. США продолжают выдвигать предварительные условия, придерживаясь жесткой линии, одновременно требуя от всех других стран, включая союзников, аналогичного

подхода к Пхеньяну, а Юг же настроен иначе.

Тут стоит также вспомнить и еще один «острый угол» американо-южно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ый «заострился» с приходом к власти Мун Чжэ Ина.

Несмотря на предыдущи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еула с Вашингтоном, достигнутые при Пак Кын Хе, Юг приостановил размещение ПРО СШ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Кореи. Это явно не понравилось Вашингтону, хотя официальн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понимает и принимает позицию Сеула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соблюдения внутренних процедур для дислокации комплексов ПРО». Помощник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он Ин, впрочем, и тут добавил не совсем приятной для США ясности.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он заявил, что в течение года ПРО США в Корею не сможет быть развернута. «Мы должны произвести экологическую проверку. А она требует оценки условий во все сезоны, то есть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года. Мы не боги, а потому не можем изменить этот закон и не можем узнать влияние на природу заранее, а потому понадобится год», - отметил Мун Чжон И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сле достаточно длительного периода нахождения в авангарде сторонников давления на КНДР и единства с США по этому вопросу Сеул теперь перешел в «китайско-российский лагерь», где призывают начать диалог без предварительных условий, согласившись сделать приемлемые друг другу уступки.

Теперь остается ожидать действий Пхеньяна. Пока в КНДР ограничиваются лишь выдвижением не связанных с переговорами своих требований к Сеулу, рискуя перегнуть палку. Мун Чжэ Ин и так сделал весьма смелые для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шаги, которые понравились далеко не всем политическим силам того же Юга. Если же Пхеньян не откликнется на предложение Сеула, то это может столкнуть Муна в сторону консерваторов.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огласие Севера на возобновление диалога с Югом может открыть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каналов общения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тем более, что Сеул шлет явные сигналы о готовности реанимировать уже сейчас некотор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и отказаться от давления на Пхеньян.

Одновременно нельзя исключать и фактора «сюрприза от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Последнего все называют «бизнесменом по сути» и человеком, который «готов к любым сделкам», а потому неожиданно может произойти прорыв на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Впрочем, пока же Вашингтон демонстрирует нежелание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Пхеньяном. Более того, возвращение властями КНДР ранее задержанно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студента на родину в состоянии комы, привело к еще большему ожесточению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и политиков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ахалин развива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ведущим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ась XVII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 науке и технологиям Россия-Корея-СНГ - Russia Korea CIS. Для участия в ней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влекли ведущие науч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соседней страны – Корейскую федерацию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KOFST) и Корейский институт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KIST).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обеих организаций встретился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KOFST сегодня координирует деятельность около 600 академ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Кореи,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сфере инженерии. Наряду с развитием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в своей стране, организация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ет 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обмен технологиями и научными достижениями. Например, росси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на конкурсной основе привлекаются в корейские науч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стажировки по программе Brain Pool.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екты повышения квалификации иностранцев действуют и в другой влиятельной науч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 Корейском институте науки и техники. KIST был основан в 1966 году как первое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в стране, и с тех пор сохраняет за собой ведущую роль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азвитии.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деятельности - биомедицина, экология и нанотехнологии.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институт уделяет продвижению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научных разработок, готовых к коммерциализации.

На встрече обсуждались возможност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егиона с обеими организациям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тажировок сахалин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Корею. С зарубежным опытом, в частности, сегодня знакомятся выпускники Президентской программы подготовки управленческих кадров. За весь период ее реализации собственный багаж знаний за границей пополнили 106 человек. География стажировок обширна – Канада, страны Евросоюза и Япония. К примеру,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в Стране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получили 13 сахалинце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дает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я,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нашим близким соседом и одной из самых быстроразвивающихся и успешных экономик мира. Исторически так сложилось, что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 Корею связывают особые отношения. В области проживает самая большая в России диаспора корейцев,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своего рода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Во многом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фактору успешно развивается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 по итогам 2016 года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заняла второе место после Японии во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гион намерен и дальше расширя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соседней страной в различных сферах: туризме, образовании, культуре и, конечно, науке. М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том, чтобы сахалинские ученые и подающие надежды специалисты управленческого звена полу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стажироваться в Корею. Также считаем важным установление более тесных контактов по линии научных кругов, - сказал на встрече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я председателя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Антон Зайцев.

Я очень впечатлен тем, что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о в развитии «экономики знаний» и намерено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ш опыт в вопросах стимулирования науч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одвижения инноваций, поддержк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реативного начала в людях. Считаю, что та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будет нацелено на практический результат и принесет пользу региону, - отметил один из участников встречи с иностранной стороны, вице-президент Коре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учно-технологических обществ, доктор Ким Юн Су.

Он добавил, что вопросы о возможностях стажировок сахалин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будут рассмотрен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Три сахалинских района благоустривают территории в рамках нов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ЖКХ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Ход выполнения данной работы рассмотрели участники рабочего совещания в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Оно прошло в режим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связ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региона.

В этом год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число российских субъектов, где в пилотном порядке запущен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оект «ЖКХ и городская среда». Одна из его ключевых задач -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ых условий проживания 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С этой целью проводится комплексное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как дворов, так и общественно значимых городских пространств.

Главная особенность начинания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 все объекты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дворов отбираются н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м путем, а с согласия и по инициативе собственников жилья. За гражданами также остается и выбор благоустраиваем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определение их дизайн-макета. Общественное обсуждение в этом случае - обязательное условие,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региона Дмитрий Зайцев, который курирует данную работу.

Средства на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проекта выделяют бюджетами трех уровней - федеральн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и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В этом году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лучил федеральную субсидию в 7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Еще 190 миллионов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из областной казны. Денежные средства уже направлены в три сахалинских района, которые стали перв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начинания. Это Южно-Сахалинск, Корсаковский и Невельский городские округа.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в них благоустроят по проекту 5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 улиц, площадей и набережных, а также 13 дворов, прилегающих к 28 многоквартирным домам.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пример, приведут в порядок четыре дворовые территории, а также три сквера по улице Сахалинской. В Невельске благоустроят шесть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а также реконструируют набережную. В Корсакове обустроят въезд в город, один сквер и четыре двора.

К ремонту дворов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в Невельском районе. Муниципальный контракт на выполнение работ по реконструкции набережной здесь - в стадии заключения. Первый из объектов - сквер имени Рудановского - начали благоустраивать 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 в Корсакове конкурсные процедуры намечены на июль.

Следующий этап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охватит пятилетний период - с 2018 по 2022 годы.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удут утверждены и начнут действовать региональная и муницип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в каждом из районов) по формированию современ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Они объединят в себе широкий перечень мероприятий по ремонту дворовых территорий, обустройству детских и спортивных площадок, парков и скверов, а также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В ряде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отметили на совещании, уже приступили к разработке таких документов.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территорий - важная и актуальная задача, которую обозначи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Активнее включайтесь в данную работу, формируйте программы и наполняйте их конкретным содержанием - значимыми проектами,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которых заявляют жители, - подчеркнула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ра Щербина, которая вела мероприяти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первые оборудовали надземный переход системой лифтов

Существенное дополнение получила конструкция пешеходного перехода у Дома торговли.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у поступила жалоба на непригодность сооружения для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Упущение было исправлено и накануне здесь начали работать специальные подъемники. Инвалиды, а также пожилые люди и мамы с колясками теперь могут пересечь проспект Мира, не преодолевая десятилетия ступеней лестницы.

Управляются лифты тремя кнопками, одна из них - закрывает двери, две других - поднимают и опускают платформу. На случай внештатных ситуаций предусмотрен вызов диспетчера.

Размер каждого подъемника - 1,55 на 1,55 метра, грузоподъемность - 325 килограммов. В каждой из кабинок помещается инвалидная коляска, остается место и для сопровождающих. Лифты изготовлены в Брянске, их конструкция сертифицирована и соответствует ГОСТу. На Сахалине - это первые подобные устройства для надземных переходов в помощь маломобильным гражданам, - рассказал Александр Мальчевский, главный инженер компании, которая занималась установкой оборудования.

Внутри играет музыка, - отметил существенную по его мнению деталь один из первых пользователей подъемников, представитель обла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нвалидов Андрей Крамаренко. - Нажимаешь на кнопку вызова и платформа опускается. Далее - заходишь в лифт, закрываешь за собой дверь, и, удерживая еще одну кнопку, поднимаешься на верхний уровень. А затем, переместившись к противоположному концу перехода, повторяешь операцию, только жмешь уже на кнопку спуска, - рассказал он о своем опыт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лифта. - На пересечение проспекта Мира у меня ушло около 3 минут, это удобно, считаю, что такие подъемники будут востребованы.

Мне понравилось. Такие лифты очень нужны Южно-Сахалинску - для инвалидов, пенсионеров и молодых мам, - поделилась своим мнением посл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одъемного устройства горожанка Ирина Милюкова, которая передвигается на инвалидной коляске.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одобное лифтов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получит и второй надземный переход по проспекту Ми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 у школы №13. В целом при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ых надземных переходов на всех област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дорогах обязательным требованием впредь станет включение в проект вот таких подъемников.

В кабинках лифтов у надземного перехода в районе Дома торговли в дальнейшем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камеры видеонаблюдения.

Японский банк JBIC предлагает Сахалину инвестицио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16 июня делегация японского Банк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JBIC) во главе с генеральным директором департамента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JBIC Танимото Масаюки встретилась с членам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результаты многолетн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планы на дальнейшую совместн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и японский Банк имеют богатую историю успеш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ов по освоению нефти и газа на шельфе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первого в России завода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в Пригородном. Банк принимал активное участие в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Наша цель - развитие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Японией и зарубежными странами.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мы наблюдаем сближение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страной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Наши бизнесмены активно интересуются, какие бизнес-проекты могут быть полезны на российском рынке, в том числе, какой вклад они могут внести в развитие сахалинской экономики. В частности, 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озможность дальнейше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развитии проекта «Сахалин-2», и готовы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со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етьей линии на уже существующем заводе СПГ,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нефтегазовых проектов JBIC Танимото Масаюки.

Гла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ера Щербина поблагодарила японских партнеров за плодотво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товарооборот с Японией в 2016 году составил более четырех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США. Это почти сорок процентов от внешнеторгового оборота области. Президентом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перед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ставлена четкая задача - налаживание тесных связей с японским бизнес-сообществом. Думаем, что ваш Банк станет активным участником взаимовыг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в нефтегазовом секторе, так и в других проектах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 расширение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готовы предоставить различные преференции японскому бизнесу при создании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 - подчеркнула, подводя итоги встречи Вера Щербина.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 января по май 2017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составил 346,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3,2%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 323,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3,9% к январю-маю прошлого года. Увеличилась добыча газа и составила 5,1 миллиарда кубических метров. Уголь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бласти добыто 2,6 миллиона тонн угля, что в 1,5 раза выше.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КТ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оставил 306,7 тысяч тонн, или 96%, переработано 203,9 тысяч тонн, или 116,7%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2016 года.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 январь-май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1,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99,2%. Сохраняет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мяса (на 10%) и молока (на 4,7%).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на 15,7%), свиней (на 32,8%) и птицы (на 28%).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1 корову увеличился на 19,3%.

В сфере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за январь-май 2017 года введено в эксплуатацию 124,7 тысяч кв. м жилья, что на 8,6% ниже января-мая 2016 года.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и заемных средств построили 58,2 тысяч кв. м (на 19,9% ниже января-мая 2016 года), что составляет 46,7% от общего ввода жилья.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в январе-мае 2017 года оборот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вырос на 2,6%. В то же время сохраняется снижение объемов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 2,9%.

Среднемесячная заработная плата в расчете на одного работника, по оценке, составила 68 тысяч рублей, он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4,3%. Денежные доходы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в отчетном периоде составили 47,7 тысяч рублей, или 98,7% к январю-маю 2016 год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на 1 июня 2017 года составил 0,7%, что соответствует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е 2016 год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세계한인학술대회서 재외동포 외연 확대 논의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평화', '차세대', '재외동포 외연확대', '동포 정책' 주제

지난해 개봉한 영화 '트윈스터즈'는 같은 날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서로의 존재를 모르고 살았던 쌍둥이 자매가 25년 만에 재회하는 내용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이들 자매와 같은 해외 입양 한인은 전 세계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인 김석범 작가는 2015년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모국을 찾은 예정이었지만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당했다. 김 작가와 같은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는 3만 4천명에 달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들을 무국적자로 분류하고 있다.

초국가적 글로벌 시대에 전 세계에 퍼져 살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외동포를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재외동포재단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동포 연구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재외동포의 외연(外延) 확대방안을 모색한다.

재외동포재단과 재외한인학회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한인학술대회」에는 전세계 17개국의 한인학자와 NPO(비영리단체) 활동가들 150여명이 참석해 재외동포사회의 현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학술대회』는 재외 동포재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외동포 학술대회다.

대회는 기획세션과 지역세션으로 나뉘어 열리며, 기획세션은 ▲ 동북아 시대 재외동포의 역할 ▲ 동포사회 변화와 차세대 코리아 커뮤니티 ▲ 국내 거주 동포 실태 및 정책 ▲ 동포정책 개선방안 및 구체적 제언 등 4개 주제로 진행된다.

「동북아시아 시대 재외동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기획세션 I 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주변국과의 관계 속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동 세션은 환경구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소장과 김강일 연변대 교수, 김계르만 카자흐스탄 국립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동북아 협력과 재외동포'에 대해 발표하는 신기욱 소장은 재외동포는 초국가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각국에서 오픈이던 리더로 활동 중인 동포를 한반도 문제와 동북아 평화 안정을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김강일 교수는 '동북아 개발협력 실천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국가 간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로 지속적인 경제 협력을 제시하고, 김 계르만 교수는 재외동포가 남북 관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할 계획이다.

기획세션의 주제는 「동포사회 변화와 차세대 코리아 커뮤니티」이다. 세대 교체를 통해 한인사회 전면에 나서고 있는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인적자산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특히, 민족교육 전문가인 권오정 일본 류코쿠대 명예교수가 재일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시대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민족교육의 모습을 소개하고, 차세대 재외동포의 육성을 위한 정부 및 사회의 역할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주 한인의 정치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는 민병갑 퀸즈대학교 교수의 연구를 바탕으로 알아볼 예정이다. 또, 이덕희 하와의 한인 이민연구소장은 한국 문화보급을 위해 지리적·유형적인 장소가 필요한지 하와의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 시대 변화에 따른 문화보급 방법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

둘째 날(6.28) 진행되는 기획세션Ⅲ는 중국동포와 고려인으로 통칭되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현황 및 정책을 살펴보고, 동포와 모국의 상생발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이들의 국내 적응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현재, 중국동포는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43%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나 경제·사회적으로 한국 이주민 사회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고려인 동포 역시 2007년 방문취업제 시행 후 크게 증가했지만 한국어가 미숙하고 한국 생활 적응이 힘든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는 일본 귀화동포 문제도 다뤄진다. 재일 동포의 일본 귀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까지 전체 재일교포의 약 40%가 귀화했다.

마지막으로, 「동포정책 개선방안 및 구체적 제언」을 주제로 열리는 기획세션Ⅳ는 재외동포의 외연 확장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구체적 실현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이 밖에 재외동포재단의 20년 성과를 돌아보고, 재외동포정책의 방향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다.

주철기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창립된 후 20년간 국내외 상황은 물론 동포사회도 많은 변화를 맞았다. 이번 학술대회가 재외동포사회의 현안과 정책을 진단하고, 동포사회와 모국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

재외동포재단에서는 10월 5일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재외동포사회와 재외동포이주사를 국내에 소개하고, 내국인에 대한 재외동포 인식제고를 위해 「제5회 재외동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사진을 좋아하는 재외동포들의 즐거운 장이 되기를 희망하며, 이번 공모전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 아래 -

1.공모 주제

가. 개인 소장 사진전

○ 개인 소장 사진전

- 나와 내 가족의 이주사(정착 당시, 과정, 현재 사진)
- 재외동포 가족 사진(1세대~현 세대까지, 3대 이상의 재외동포가 함께 찍은 사진)
- 기타 재외동포의 정착 과정을 나타낼 수 있는 사진과 사연
- 예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의 정착 스토리와 각종 에피소드

○ 고려인 중앙아시아 정주 80주년

- 러시아,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지역의 과거 고려인 사회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 소장 사진

◆ '개인 소장 사진전' 개최 목적은 재외동포 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해외한인사회의 과거 사진을 수집하여 이민 역사를 국내에 소개하고자 함입니다.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 외에도 선대나 이웃으로부터 전해 받아 소장하고 있는 사진이 있으면,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 참여사진은 법적 문제 발생 소지(저작권, 사용권 등)가 없는 사진이어야 함.

◆ 참여작은 '세계한인의 날 기념 재외동포사진전시회' 용도로만 활용되며, 수상작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귀한 사진 보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나. 사진 공모전

○ 재외동포 삶의 현장

- 직업(사업), 학교 일선의 재외동포의 활발한 활동 모습
- 재외동포 차세대들의 활약상, 공공외교 활동
- 이민사회 속 재외동포들의 자연스러운 생활상
- 재외동포로서 잊지 못할 순간
- 자랑스러운 세계한인

- 모국에 대한 향수를 느끼는 순간

- 내가 바라본 세계 속의 한인

- 해외에서 만난 나의 인연들

○ 세계 속의 한국

- 세계 각 지역별 동포사회의 특성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

- 세계 속에서 발견한 한국의 美

- 세계 속의 한인들의 거점이 되는 공간(코리아타운, 한인회관, 한글학교, 기타 커뮤니티 등)

○ 재외동포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 나에게 대한민국은 □□□이다.

- 새로운 대한민국에 □□□을 바란다.

※ □□□을 표현한 포토메시지

2. 응모자격

○ 응모자격 : 국내·외 모든 재외동포

- 국외 : 모든 재외동포

- 국내 : 국내에 일시 체류 중인 재외동포

3. 접수 일정

○ 접수기간 : 2017. 5. 25(목) ~ 7.25(화) / 24:00, 한국시간 기준

※ 5.25(목)부터 접수 가능

○ 수상작 발표 : 2017. 9월 / (예정)

【재외동포재단 코리아넷 홈페이지(www.korean.net) 공지사항 게재】

4. 응모 방법

가. 응모방법 : 온라인 접수, 코리아넷(www.korean.net) 공지사항 및 팝업존

※ 홈페이지 회원 가입 필수

◆ 아날로그 사진 : 원본사진을 스캔하여 (300dpi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 수상작은 추후 수상작 원본 필름 제출 필수

◆ 디지털 사진 : 2,000×2,800pixel 이상 권장, 파일용량 2MB 이상, JPEG 파일로 응모

나. 응모 시 유의 사항

○ 공모전은 본인이 직접 찍은 사진에 한함.

○ 응모자는 중복 응모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작품이 선정될 경우, 한 주제의 상위성적만 인정함.

○ 요청 자료(촬영일시 및 장소, 사진제목, 사진설명 등)는 필수이며 누락될 경우 수상작에서 제외될 수 있음.

다. 문의

○ 사업 관련 : photo@okf.or.kr, 82-2-3415-0146(동포단체지원부 김수빈 직원)

○ 시스템 관련 : 82-2-3415-0197(e-한민족사업부 이지은 대리)

5. 우수작 대우

○ 시상 : 13명

- 대상(1명) : 100만원, 우수상(1명) 50만원, 입선(11명) 각 30만원

- 우수작 국내전시

- 수상작 13개 작품과 우수작 100여개 작품을 선정하여 국내에서 전시

6. 기타 유의 사항

○ 아래 사항 해당 작품은 시상 후에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가 지게 됨.

- 표절 및 타인 대리 출품

- 타인이나 타 기관에 저작권·초상권·사용권이 있는 경우

- 기타 심사위원회가 부적격하다고 판단, 의결한 작품

○ 주최측은 행사 홍보를 위하여 출품작을 전시회 및 행사 홍보물 제작, 코리아넷 홈페이지 게재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모든 응모작의 저작권(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응모자(창작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최종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으로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전송권, 배포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은 상금으로 대체함.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사할린에서는 첫 행사에 한 팀에 4명으로 구성된 6팀이 참가했다. 팀들은 쓰레기 수집량을 승부로 결정하는 경쟁을 벌였다. 경쟁에서 9세부터 14세까지의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가장 어린 팀인 <해양의 아이들>이 최우승을 차지하여 주최 측은 상패와 상품으로 시상했다.

환경정화를 위해 선정된 행사 진행장은 우연찮게도 근처 해변가에 수렵금지목록에 등록돼 있는 강치들이 일년 내내 휴식하는 서식지가 있다.

주최 측은 자연에 대한 존중의 문제와 해양오염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사가 정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전했다.

<깨끗한 놀이>는 2014년부터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보호를 습득하게 하는 러시아 생태환경 교육기회이다. 생태환경놀이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올혼선(바이칼 호수), 하바롭스크,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를 비롯해 국내 30여 도시들에서도 진행되었다고 클럽 <부메랑>은 전했다.

Сахалинские волонтеры провели "Чистые игры" на мысе Кузнецова

30 волонтеров из клуба "Бумеранг"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Чистые игры" провели генеральную уборку в прибрежной зоне мыса Кузнецова — недалеко от залёжки сивучей, расположенной на скалах. Уборка проведена в формате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квеста — на побережье было собрано и уничтожено около пяти тонн мусора. "Чистые игры" на мысе Кузнецова прошл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льянса "Экодело".

В первой игре на Сахалине участвовали шесть команд по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Он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количестве собранного мусора. Победу в соревнован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судили самой юной команде — "Дети океана". В состав этой команды входили волонтеры в возрасте от 9 до 14 лет, они получили сладкие призы и памятные подарки.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было выбрано не случайно — рядом с побережьем находится лежбище сивучей, на котором краснокишечные животные предпочитают отдыхать круглогодично.

Организаторы надеются, что смогут сделать дан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регулярным и привлечь внимание большего количества людей к проблеме загрязнения океана и вопросу береж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природе.

"Чистые игры" — это российский экологический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й проект, который с 2014 года привлекает людям береж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природе. Экологические игры прошли более чем в 30 городах страны, в том числе в Москв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на острове Ольхон (озеро Байкал), в Хабаровске, Владивостоке и многих других местах, сообщает клуб "Бумеранг".

학생들, 박물관에서 푸쉬킨 작품 낭송

6월 20일 <사할린 섬> 체호브 책 박물관에서 <체호브가 좋아하는 시인>행사가 개최되었다. 행사 참가자들은 푸쉬킨의 작품을 낭송했다.

주중앙도시 푸쉬킨 제1김나지아, 제1리케이, 제32중학교와 제8학교의 학생 총 14명이 자신이 좋아하는 위대한 러시아 시인들의 작품을 낭독하거나 외워 낭송했다. 제1김나지아 학생들은 <살탄 황제에 대한 이야기>를 모티브로 무대를 묘사하고 주제에 걸맞는 의상도 준비하여 단막극을 소개했다.

전체 행사에 약 80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즉흥무대에서는 <악마>, <겨울 아침> 시가, 서사시 중 <루슬란과 류드미라>와 <오네긴에게 보내는 타짜아나의 편지>등도 낭독되었다.

행사는 <문학 살롱>의 일환으로 사할린주 일 반과학도서관과 <리라>문학연합회와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고 <사할린 섬>체호브 책 박물관 측은 전했다.

Школьники прочит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ушкина в музее

20 июня в музее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прошла акция "Любимый поэт Чехова". Ее участники зачитали произведения Пушкина.

14 школьников из гимназии №1 имени Пушкина, лицея №1, школ №32 и 8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выучили наизусть и зачитали свои любим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великого русского поэта. Ученики гимназии №1 подготовили тематические костюмы и небольшую театральную зарисовку по мотивам "Сказки о царе Салтане".

Всего в ак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80 детей. С импровизированной сцены прозвучали стихотворения "Демон", "Зимнее утро", отрывок из поэмы "Руслан и Людмила", "Письмо Татьяны к Онегину" и другие.

Акция прошл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Литературная гостиная" и в партнёрстве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ой и литературным объединением "Лира", сообщает музей книги Чехова "Остров Сахалин".

(사할린주 및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급이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